

2014년 12월 3일

누계 탑승객 수, 700만 명 달성 ~ 노선 확대와 수익 확보 양립 속에 365일 저가 운임 실현 ~

- LCC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조기 수익 확보와 노선 확대의 양립
- 견고한 경영 기반이 안정적인 저가 운임 실현
- 2015년 2월에는 오키나와 (나하) - 홍콩 노선 신규 운항

Peach Aviation 주식회사 (이하 : Peach, 대표이사 CEO : 이노우에 신이치, 본사 : 오사카부 이즈미시노시) 는, 오늘 2012년 3월 취항 이래 누계 탑승객이 11월 24일 700만명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누계 탑승객수가 700만명을 달성한 것에 대해, 대표이사 이노우에 CEO는 「이용 해 주신 많은 고객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일본에서 LCC 비즈니스를 전개 해 나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노선 확대와 함께 조기에 수익을 확보해서 견고한 경영 기반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품질의 오퍼레이션 품질을 유지하고, 혁신적인 노력과 대처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안정적으로 365일 저가 운임을 실현하여, 많은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Peach는, 2012년 3월 운항을 시작한 이래 25개월만에 경영 흑자를 달성하는 등, Peach의 비즈니스 모델이 사업적으로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현재는 간사이 공항과 더불어, 오키나와의 나하공항을 거점으로하여, 국내선 10개 노선, 국제선 6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2015년 2월에는 나하공항에서 2번째의 국제선이 되는 오키나와(나하)-홍콩 노선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Peach는, 앞으로도 착실한 사업을 전개 해 나가면서 항공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공헌 할 것입니다.

